# Infographic Poster

흡연 에티켓 - 시각디자인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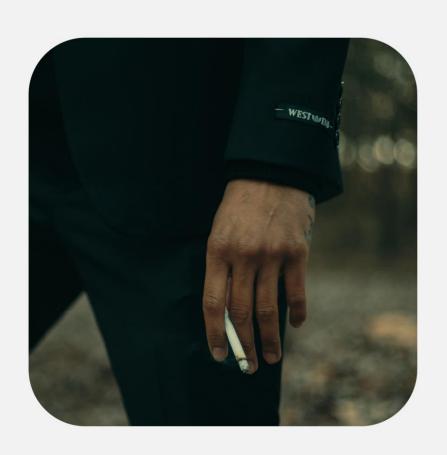
### Contents

- · 소재 선정
- · 리서치
- · 세부 계획
- · 산출물



### : 흡연 에티켓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해왔던 것처럼 흡연률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 방안으로 담배값을 올리기도하고 담배에 혐오그림을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 조금 지나 흡연율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은 계속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흡연 에티켓은 무엇일까?



### 길 위의 살인마:

## 간접흡연

흡연부스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실내에서의 거의 지켜지는 것에 비하여 실외 흡연부스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흡연자들이 주변에 실외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다른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담배꽁초도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 담배꽁초도 쓰레기인데?:

### 무단투기

우선 담배꽁초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기 쉽다. 이러한 행태에 불만을 느낀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 담배꽁초가 가득한 사진을 찍어 올려서 인터넷에 많이 확산되고 있다. 담배꽁초를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도 있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 고통스러운건 똑같아요:

### 전자담배

또한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향이 좋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금연구역의 흡연 제제 대상이니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 레 퍼런스 - 컬러: 경고적인 분위기와 주의 강조를 위해 무채색과 고채도 컬러 사용







####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10~11월 국내 19~49살 성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간접흡연을 겪은 장소를 모두 선택하도록 설문조사한 결과 길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간접흡연을 겪은 사람 10명 가운데 약 9명은 길거리에서 고통을 겪은 것이다. 이어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 피시(PC)방(37%), 당구장(32%), 직장 실내(30%), 직장 내복도와 계단(28%) 순이었다. 또 음식점이나 직장 내 화장실에서도 25%가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가정의 실내'도 23%로 나왔다.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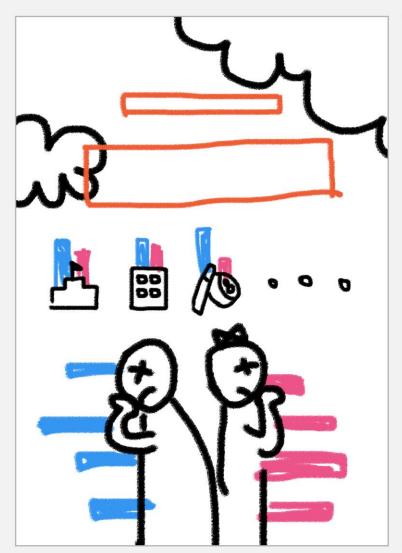
#### 간접흡연경험 빈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생각도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여자보다 남자 답변이 많은 정책으로는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금연 교육 및 홍보 강화' '담배 광고 전면 금지'가 꼽혔다. 남자보다 여자 답변이 많은 정책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과태료 인상)'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담뱃세 인상' 등 간접흡연 규제에 대한 빈도수가 높았다.

#### 세부계획







미성년자 담배구매 가능 연령 낮춤)





